

손병희의 꿈과 민족운동

조 규 태*

-
- I. 머리말
 - II. 출신·품성과 동학사상의 수용
 - III. '學'에서 '敎'로의 사상적 전환
 - IV. 정치사상과 3·1운동의 전개
 - V. 맺음말
-

I. 머리말

손병희(1861~1922)는 천도교의 3세교주이고, 동학농민군의 統領과 3·1운동의 민족대표로 활동한 대표적 민족운동가이다. 손병희는 1898년 동학의 2세교주인 최시형이 사망하자 도통을 계승하고,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바꾼 후 교회를 300만교도의 대세력으로 성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시 中軍 統領으로서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군'과 연합하여 공주 등지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시에, 그는 천도교의 교주와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자로서 천도교·기독교·불교의 대표를 지도하여 독립선언식을 개최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배포하게 함으로써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점에서 손병희는 한국의 종교사와 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손병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연구와 검토가 있었다.¹⁾ 그리하여 손병희의

* 한성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손병희의 전기로는 다음의 것이 참고가 된다. 오재식 편, 「손병희」, 『한국근세위인전』(서울행정신문사 출판국, 1958). 유광열, 「독립운동의 거화 손병희」, 『인물한국사 5: 개화의 선구』(박문사, 1965).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96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고려대학의 사람들 2: 손병희』, 1986. 윤명숙, 「손병희」, 『대한영웅전(1)』(국가보훈처, 1995).

손병희의 문명개화운동과 3·1운동에 관한 글로는 다음의 글이 도움이 된다. 김정인, 「손병희의 문명개화노선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2002. 최효식, 「의암 손병희와 3·1독립운동」, 『동학연구』 14·15합집, 2003. 박성수, 「3·1운동과 의암 손병희」, 『중앙사학~상암기호일교수정년기념특집』 21, 최기영, 「손병희는 천도교를 세우고 어떤 민족운동을 펼쳤을까?」, 『대한제국기 서울사람들 ~ 우리 역사속의 사람들 3~』, 2004. 2005. 이용창, 「동학농민운동 이후 손병희의 단일지도체제 확립과정과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 2006. 이현희, 「의암 손병희와 3·1운동」, 『동학학보』 17, 2009.

손병희의 사상 및 신관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정혜정, 「의암 손병희의 인내천 교육사상」, 『문명연지』 3~2, 2002. 임태홍, 「손병희의 神觀」, 『동학연구』 14·15합집, 2003. 김용

출생·성장·활동·사망 등의 생애에 관한 것이 대체로 밝혀졌다. 손병희가 근대화운동을 추진한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3·1운동에 있어서의 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손병희의 인내천사상과 신관에 대해서도 개략적이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손병희의 생애와 사상과 활동을, 손병희가 꿈 꾸 세계, 꿈의 실현을 위한 구상, 그리고 꿈을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란, 전체적이고 일관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은 미흡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손병희가 교권을 장악하고 교인을 동원하여 갑진개화운동과 3·1운동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토대와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필자는 먼저 손병희가 어떤 배경과 동기에서 동학을 수용하였으며, 동학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였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보겠다. 이어 손병희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儒·佛·仙에 기초한 傳統思想家에서 서구의 文明開化論에 입각한 開化思想家로 탈바꿈하고, ‘學’에서 ‘教’로 입장을 바꾼 배경,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병희가 3·1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推動한 사상적 기저와 3·1운동에서의 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출신·품성과 동학사상의 수용

孫秉熙의 어릴 적 이름은 應九였고, 한 때 奎東으로 불렸다. 雅號는 笑笑이며, 道號는 義菴이다. 그리고 일본에 망명해서는 李相憲이란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²⁾

孫秉熙는 1861년 4월 8일 충북 청주군 대주리(현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본은 밀양이고, 조부의 이름은 光澤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斗興(字 懿祖)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청주에서 아전으로 생활하였다. 그런데 손병희는 손두홍과 첩인 경주 최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한 서출이었다.³⁾

그는, 어릴 적에, 嫡庶差別을 일삼는 당시의 문화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집안과 밖에서 서출이라고 차별을 당하였다. 율분에 찬 그는 7세 이후, 아버지와 형을 아버지와 형으로 부르지 못하고, 적서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따졌다고 한다.⁴⁾

그는 어려서 동네에서 한문을 배우고, 그 후로는 독학을 하였을 뿐 특별한 학력은 없었다.⁵⁾ 그

휘, 「한말 동학의 천도교 개편과 인내천 교리화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25, 2005. 김용휘, 「의암 손병희의 『무체법경』과 동학·천도교의 수련」, 『동학연구』 25, 2008.

2)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967. 13쪽.

3)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967. 11·12쪽. 嫡兄은 秉權이었으나, 同腹弟는 秉欽이었다.

4) 이돈화, 『천도교창건사』(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의암성사편, 1쪽.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7·18쪽.

5) 「손병희선생취조서」 1919. 8. 21, 고등법원(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84쪽).

는 자신이 서자이기 때문에 입신양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공부에 몰두하지 않고, 책을 집어 던졌다고 한다.⁶⁾

울분에 찬 그는 불평을 풀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도박장에 출입하고, 동류를 모아 浪人團을 만들고, 그 두령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초정리 약수터에 갔다가, 어떤 양반이 일반 백성들이 물을 먹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물을 떠 주고, 양반에게 흐린 물을 퍼서 끼얹은 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청주 일대에서 浪人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⁷⁾

그의 방탕한 생활을 잡아보려던 부모의 의사 때문인지, 그는 15살이던 1875년 12월 24일 자신보다 세 살이 위인 玄風 郭氏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결혼을 한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였다. 그는 1879년 어머니와 처자식에게 먹이려고 세교리의 시장에 가서 쌀장사에게 쌀 두 말을 외상으로 사려다가 창피를 당하기도 하였다.⁸⁾

이처럼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지만, 義氣만큼은 남달랐다. 그는 12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관가에 공금을 바치러 가다가, 길가에서 동사 직전의 사람을 만나자, 주막에 데려가 공금을 사용하여 밥을 먹임으로써 그의 목숨을 구하여 주었다. 같은 해에, 친구의 아버지가 공금 1,000량을 횡령하였다가 머지않아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에게 자신의 집에서 1,000량을 훔쳐가게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을 뒤통자하자 그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서서 “그 돈을 훔쳐가게 한 것은 바로 이 놈이올시다. 돈 1,000량은 없다가도 생길 수 있으나, 아무게 아버지 목이야 한번 베이면 다시 생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17살 때 그는 괴산 삼거리로 지나다가 修信使가 역졸의 머리털을 말꼬리에 묶고 오는 것을 보고, 그는 낮으로 말꼬리를 자르고, 마부를 후려갈긴 후에, 修信使를 끌어내려 사람을 이처럼 천대하느냐 항의하고 諭書筒을 못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이 외에도 그는 20살 때 청주에서 주은 돈 300량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제공하는 사례를 극구 거절하였으며, 괴산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전염병일까 두려워하여 장사를 지내주지 않는 한 시신 5·6구를 손수 엄하여 장사를 지내주기도 하였다.⁹⁾ 이처럼 손병희는 양반이라고 하여 상민을 차별하면 참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고려했고 도와주는 품성을 갖고 있었다. 참으로 그는 義氣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의 도호가 義菴인 것도 바로 이런 그의 성품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손병희는 언제, 어떤 연유로 동학을 믿게 되었을까? 3·1운동으로 체포된 그는 판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주에 살고 있을 때 姻戚되는 金誠芝로부터 권유를 받고 東學을 신앙하게 되었다.”¹⁰⁾고 답하였다. 김성지는 1881년 8월 柳敬順·尹相五·金榮植·金股卿과 함께 인제에

6) 이돈화, 『천도교창건사』(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의암성사편, 3쪽.

7) 이돈화, 『천도교창건사』(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의암성사편, 3쪽.

8)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967. 24쪽.

9) 오재식, 「民族代表三十三人傳」 138~140쪽.

머무르고 있던 해월 최시형을 찾고¹¹⁾, 1893년에는 목천 伏龜亭 지역의 대접주로 활동한 金成之¹²⁾와 동일인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손병희는 목천 지역에 거주하던 동학지도자인 김성지로부터 동학을 소개받고, 동학의 사상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손병희는 1882년 嫡出 장형 孫秉權의 아들인 孫天民을 통하여 동학에 입교하였다. 손병희는 처음 손천민이 찾아와 동학은“三災八難을 면하고, 모든 재앙을 면하는 도입니다.”라고 하니, 나는 “三災八難이 있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동학에 입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천민이 徐虞淳을 보내어 동학이 輔國安民·布德天下·廣濟蒼生の 대도임을 설명하고, 또 손천민이 金相一을 보내어 최제우의 天人合一에 의한 事人如天主義와 최시형의 事人如天에 대한 윤리도덕과 민족정의, 大道敎化와 동귀일체, 국내외 정세와 동학 등에 대해서 설명하니, 그 제서야 손병희는 동학에 입교하기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인 1882년 10월 5일 徐虞淳의 집에서 손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입교식을 갖고 동학에 입교하였다.¹³⁾ 그러니까 손병희는 동학의 事人如天의 평등 사상과 보국안민·광제창생 등의 애민사상과 민족주의사상에 매료되어 동학에 입교하였던 것이다.

동학에 입교한 후, 손병희는 난류배와의 교제와 술과 도박을 끊고 주문을 외우며 수도에 정진하였다. 그리고 그는 1884년 1월 최시형을 進講하였다. 그리고 그는 1884년 10월 최시형과 함께 공주 迦葉寺에 가서 49일기도를 행하였다. 또한 그는 1890년 진천군 방동에서 三七日을 1기로 주문 100만讀을 행하였다고 한다.¹⁴⁾

이러한 수련 활동에 따라 손병희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고, 이에 따라 그의 동학교단을 위한 활동은 더욱 더 헌신적으로 되었다. 그 결과 손병희의 교단 내 위상은 점차로 높아졌다. 손병희는 1890년 3월 동복제인 孫秉欽과 함께 최시형을 충주군 外西村 沕坪에 移居하게 하였다. 그리고 1891년 2월에는 공주에서 최시형과 교리문답을 하였다. 이 때 최시형이 “降話의 敎 라 함은 무엇인가?”하고 묻자, 손병희는 “사람의 一動一靜이 곧 천의 理氣라 하온즉 한울과 사람은 그 근원이 하나이니, 사람이 만일 私慾을 버리고 천심으로써 말하면 이 곧 天語가 될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손병희는 동학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적극 참여하였고,

10) 「손병희선생취조서」 1919. 8. 21, 고등법원(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84쪽).

11) 『본교역사』, 포덕 22년.

12) 「동학란기록」, 『巡撫先鋒陣瞻錄』, 27일. 이 자료에는 金成之로 나온다.

13) 이돈화, 『천도교창건사』(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의암성사편, 4쪽.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967. 70~72쪽.

14) 이돈화, 『천도교창건사』(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의암성사편, 4~7쪽. 해월신사편, 31~33쪽. 손병희가 최시형을 처음 만난 연도는 의암성사편에는 1884년으로, 해월신사편에는 1883년으로 나온다. 그런데 의암성사편에는 손병희가 수도가 안 된 상태에서 최시형을 만나지 않겠다는 표현이 나오므로 1884년이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주의 가섭사에 간 것은 해월신사편의 기록과 오상준의 『본교력사』의 기록이 일치하여 1884년 10월의 설을 채택하였다.

1893년 초 복합 상소 즈음에는 김연국·손천민과 함께 총지회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1893년 3월 11일 보은취회 때에는 忠義大接主로 참가하였다.¹⁵⁾

손병희는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를 최시형에게 건의하였다.¹⁶⁾ 후일 손병희는 “당시 정부에는 탐관오리가 있어 무고한 백성을 벌하고 재산을 빼앗고 부녀를 빼앗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악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봉기하였다”고 신문에 답하였지만¹⁷⁾, 이는 일본의 침략을 격퇴하려는 목적에서 봉기한 사실을 숨겨 말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의 統領에 임명되어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공주에 가서 전봉준이 이끄는 남쪽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관군 및 일본군과 싸웠으나 크게 패배하였다. 이후 손병희는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전북의 전주·태인·금구 원평·무주 등지와 충북의 영동·청주·충주 등지로 도피하면서 관군·일본군·민보군과 싸웠다. 그렇지만 형세가 불리하여, 결국 1894년 12월 24일 충주에서 동학농민군을 해산시키고 최시형을 호위하고 강원도로 가서 은거하였다.¹⁸⁾

Ⅲ. ‘學’에서 ‘敎’로의 사상적 전환

손병희는 동학농민운동 후 1895년 무렵 평안도의 강계·후창·위원·자성 등 압록강 방면과 함경도 지방의 장진, 그리고 한·청·러의 국경지대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였다.¹⁹⁾ 그리고 그의 심복인 이용구도 1895·96년 황해도 지역으로 도망을 다닌 후, 1897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지역에 포교를 하였다.²⁰⁾ 그런데 이 지역은 다른 지방보다 문명개화사상에 관심이 높은 곳이었다.²¹⁾ 따라서 그의 聯臂 중에 이 지역의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손병희는 개화운동의 필요성을 보다 더 절감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897년 12월 24일 도통을 전수받았다²²⁾고 하나, 1898년 최시형이 관군에 체포되어 사망하고 난 1900년 7월 무렵 서북지역 교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교권을 장악하였다.²³⁾ 그는 1901년 3월 자기가

15) 이돈화, 『천도교창건사』(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해월신사편, 51~55쪽.

16) 이돈화, 『천도교창건사』(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해월신사편, 65~66쪽, 의암성사편, 8~9쪽.

17)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4.10,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85쪽).

18) 이돈화, 『천도교창건사』(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해월신사편, 65~66쪽, 의암성사편, 8~9쪽.

19)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967, 131쪽.

20) 박정동, 『시천교종역사』(시천교본부, 1915), 3편 3쪽. 줄고,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9, 187쪽, 참조.

21) 줄고,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향 ~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21, 1990, 81~91쪽.

22) 이돈화, 『천도교창건사』(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해월신사편, 81쪽.

23) 이돈화, 『천도교창건사』(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의암성사편, 21쪽. 이때에 이르러서야 김연국은 손병희의 중통 승계를 인정하였다. 손병희의 교권 장악은 그가 포교한 서북지방의 교인들에 힘입은 것

거느리던 박인호·이중훈·홍병기·이용구 등에게 문명국 답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여 동의를 얻었다. 손병희는 문명개화사상을 배우기 위하여 미국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원산에서 배를 타고 부산을 경유하고, 나가사키와 오오사카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비가 떨어져 그는 일본에 머물렀다.²⁴⁾

그는 일본에서 전 군부대신 趙義淵과 권동진·오세창·박영효·양한묵 등과 교류하면서 일본을 시찰하였다. 또 서구의 사정과 동북아질서 등의 국제사정을 파악하고, 문명개화사상 등의 서구사상을 수용하였다.²⁵⁾

그는 1902년 24명의 동학 청년들을 일본의 나라와 교토의 중학교 등에 입학시켜 수학케 함으로써 국제정세를 이해하고, 서구의 사상을 수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1903년 「三戰論」을 발표하여 개화의 시기에 輔國安民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사상의 전투인 道戰, 경제 전쟁인 財戰, 외교 전인 言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²⁶⁾ 또 같은 해 「明理傳」을 발표하여 서구자본주의문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수의 순환법칙에 따르는 필연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大同會·中立會·進歩會 등의 민회를 설립하고 민회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하여 동학교포의 자유를 얻고, 개화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용구가 1904년 말 진보회와 일진회를 통합하고, 1905년 말 일진회의 명의로 일본의 보호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한 탓에, 단발한 동학교인들이 일진회원으로 인식되어 의병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에서 이 소식을 들은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 東學이란 명칭을 天道敎로 바꾸고 이후 종교적 활동에 전념하게 하였다.²⁸⁾

東學에서 天道敎로 바꾼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學’에서 ‘敎’, 즉 ‘배움’에서 ‘가르침’으로 손병희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가치관과 마음의 자세도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學徒’, 즉 ‘배우는 사람의 무리’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겸손함은 사라지고, ‘敎徒’, 즉 ‘가르치는 사람의 무리’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표출되었다. 명칭만 놓고 보면, 동양의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서양의 그것으로 변화한 것이었다.

손병희는 귀국 후인 1906년 2월 천도교대헌을 반포하고 중앙총부의 조직을 정비하고, 지방에 72교구를 설립하였다.²⁹⁾ 천도교의 성립 이후 손병희는 천도교 중앙총부의 간부들 중 상당수를 개화와 인물 혹은 일본에 유학하여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으로 임명하였다. 1906년 2월 개화과

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 21)의 참고 참고.

24) 줄고,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9, 187쪽.

25) 줄고,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9, 188~191쪽.

26) 줄고,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9, 190쪽.

27) 김정인, 『천도교의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41~42쪽.

28) 줄고,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9, 191~198쪽.

29)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종령집』, 1983, 22~23, 202쪽.

인물인 梁漢默·吳世昌·權東鎭은 각기 玄機司 진리과원, 이문관장, 전제관장 대리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902년 일본에 유학하였던 金顯玖와 趙東元은 각기 금융관 금고원과 庶應觀長 대리에 임명되었다.³⁰⁾

손병희는 서구의 문명개화사상을 전파하여 교인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신문을 발간하였다. 『만세보』의 창간호에 “전국 이천만 동포의 腦髓를 一朝에 劈開하고 文明한 신공기를 醍醐와 같이 灌注하여도 其 不足함을 유감됨으로 생각할 시대이라, 吾儕는 여차한 시대에 인민교육의 대표하는 의무로 巨款을 소비하여 신보사를 설립하고”³¹⁾라고 되어 있듯이, 그는 교인을 비롯한 인민을 계몽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 『만세보』를 발간하였던 것이다. 손병희는 『만세보』에 1906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준비시대」를 연재함으로써 適者生存과 優勝劣敗를 경구로 하는 사회진화론을 전파하였다.³²⁾ 그리고 그는 부강한 문명국과 자유국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³³⁾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손병희는 입헌제를 옹호하였다. 그는 「준비시대」에서 동양의 정치는 임금의 백성 보기를 노예같이 하며, 백성이 임금 보기를 범같이 하는 苛政과 壓政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입헌제는 군민공치의 문명정체라고 하였다. 그리고 손병희는 鄉自治를 주장하기도 하였다.³⁴⁾

교인들에게 문명개화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손병희는 교리강습소의 설립을 장려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손병희가 임명한 중앙총부 내의 문명개화론자들은 1908년 6월 교리강습규칙을 마련하고, 1908년 7월 교구의 성화실에 야간교리강습소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1909년 9월 중앙총부에 교리강습소를 관장하는 法科를 신설하였고, 1909년 11월에는 연원주의 계급을 정하는 데 강습소의 설립자와 졸업생의 다소를 참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1년 6월에는 교리강습소의 강사를 교육하기 위하여 종학강습소를 특설하여 운영하였다.³⁵⁾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12년 말 전국에는 평안도 404개소 등 700여 개소의 교리강습소가 설치되어 있었다.³⁶⁾ 이렇게 교리강습소가 설립되자 손병희는 천도교의 간부들로 하여금 전국을 순회하며 문명개화사상을 전파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중앙총부 書計員 李殷哲은 1906년 11월 29일 ‘천도교의 종지는 儒佛仙 合一이오. 종교의 효력은 국민정신을 涵育하여 文明世界에 進歩하는 것’이란 취지로 강연하였고³⁷⁾, 며칠 뒤에는 淳

30)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종령집』, 1983, 14~16쪽.

31) 『만세보』 1906. 6.17.

32) 출처,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57쪽.

33) 김정인, 『천도교의 근대 민족운동 연구』, 43쪽.

34) 김정인, 『천도교의 근대 민족운동 연구』, 43쪽.

35) 『천도교종령집』, 93~95, 110~112, 145쪽.

36) 『천도교회월보』 29호, 1912.12, 50쪽의 기록에 따르면 제692호 교리강습소의 존재가 확인된다. 출처,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181~182쪽.

37) 『만세보』 1906.12.11, 3면, <巡督說教>.

昌郡 鍊武亭에서 1,000여명의 청중 앞에서 「社會文明이 종교 확장에 在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³⁸⁾ 또한 敎區巡督 權秉憲은 1906년 12월 6일 고창군에서 「敎의 經歷과 眞理와 社會文明」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³⁹⁾

또 손병희는 천도교 중앙총부와 지방 교구로 하여금 교육기관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천도교에서는 보성학원이 재정난에 빠지자 1910년 12월 보성전문학교·보성중학교·보성소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비슷한 시기 서울의 동덕여학교·문창학교·보창학교, 대구의 일신여학교 등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청주의 종학학교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또 서울의 양덕여자보통학교·오성학교, 대구의 교남학교, 청주의 청북학교 등도 경영하였다.⁴⁰⁾ 이러한 학교의 운영은 손병희의 관심과 양해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교리강습소와 보성전문학교와 보성고등보통학교 등의 근대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교인들은 서구의 근대사상을 갖추고 중앙총부와 지방교구의 중심인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사귀고, 교회 밖에서는 교우와 친구를 사귀으로써 유사시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망을 형성해두고 있었다. 이것은 3·1운동 시, 천도교인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기독교인 등의 지식인과 연계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토대로 작용하였다.

IV. 정치사상과 3·1운동의 전개

앞서 살폈듯이 그는 동학의 구복신앙보다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사상에서 동학에 입교하였다. 그리고 그는 3·1운동 시에도 천도교의 布德天下·廣濟蒼生, 人心卽天心의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⁴¹⁾ 관사의 신문에 “어려서부터 동학을 믿었기 때문에 가슴 속에서 국가적 관념과 민족적 관념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였던 것⁴²⁾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동학·천도교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사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종교철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종교가 정치에 간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국가가 종교를 도와주면, (종교가) 정치에 관계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정치에 붙어가며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 하에, 그는

38) 『만세보』 1906.12.29, 3면, <巡督說敎>.

39) 『만세보』 1906.12.25, 3면, <巡督說敎>.

40)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101쪽.

41) 『손병희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제1회, 1919. 4.1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탐구당, 1990, 63쪽.

42)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3. 7,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81쪽).

동학농민운동과 갑진개화운동을 주도하였고, 3·1운동도 주도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손병희는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독립시키면, 중국의 감정도 완화되어 장래 동양의 평화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⁴³⁾ 그리고 그는 동양에 평화가 정착되어 동양이 일단이 되고, 가장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 서양세력에 맞서는 것이 일본 한 나라를 가지고 서양 세력에 대항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또 더 나아가 세계가 一團이 되어 침략이란 것을 끊어 없애버린다면 각 민족이 서로 친화하여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⁴⁴⁾

게다가 손병희는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손병희는 일본이 합병 시에 천황의 勅語로 一視同仁한다고 하였으나, 천도교에서 교당 건축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도 금지할 정도로, 조선인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배에 불평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여보상’이라고 하면서 열등시 하는 것에도 불만을 갖고 있었다.⁴⁵⁾

그런데 1918년 1월 상순 미국 대통령 윌슨이 강화의 기초조건으로서 14개 조항을 주창하면서 식민지 문제 등 주권에 대해서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되자, 윌슨은 강화회의에 참석하여 그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⁴⁶⁾

손병희는 1919년 1월 경 신문을 통해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한 것을 읽고, 국제세계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변할 것이므로, 조선도 이 취지에 따라 독립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는 당시 파리에서 개최 중인 강화회의에는 일본이 5대국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동 회의에서는 민족·평화 등의 권리를 주는 것을 의제로 삼고 있으므로, 동 회의에 열석 중인 일본이 당연히 조선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조선의 독립을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손병희는 영국이 에이레를 독립시키므로 일본이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⁴⁷⁾

그런데 당시 재외 조선인 중에서 이미 파리에 건너간 사람이 있고, 동경 유학생 중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가 있으며, 상해 재류 조선인 중에서 조선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43)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4.10,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89쪽).

44) 「손병희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제1회, 1919. 4.1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탐구당, 1990, 65, 289·290쪽.

45)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4.10,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89쪽). 「손병희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제1회, 1919. 4.1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탐구당, 1990, 65쪽.

46) 1919년 특예 제1호 동 제5호, 손병희등 고등법원판결문(1920. 3.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6쪽.

47)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3. 7,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81쪽).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4.10,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87쪽).

풍설이 떠돌았고, 이에 따라 인심이 동요하였다.⁴⁸⁾ 권동진은 국외의 한국인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자를 보내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최린은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된 宋繼白을 만나 그 계획을 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손병희에게 보고되었다.⁴⁹⁾

손병희는 1919년 1월 20일 권동진·오세창·최린을 자택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학생들이 독립청원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도 없고, 세간의 안녕을 어지럽히니, 지금 상당한 동지가 있으면, 우리들이 정식으로 그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다.⁵⁰⁾ 손병희는 이 무렵 朴永孝를 방문하여 조선총독부에 박영효·윤치호·손병희의 명의로 독립을 청원하는 문서를 제출하자고 제의하였다.⁵¹⁾ 그러니까 손병희는 1월 중순까지 조선총독부 등에 의견서를 보내 독립을 청원하는 방식의 운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1월 하순 손병희는 권동진·오세창·최린과 수차례 협의하여, 동지를 모아 손병희 등 조선민족 대표자의 이름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또 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조선 각지에 배포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조선독립의 시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독립에 대한 조선민족의 열망을 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손병희는 일본의 정부와 귀족원·중의원, 조선총독부, 파리강화회의의 열국 대표에게 조선독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조선독립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⁵²⁾ 즉, 손병희는 독립에 대한 청원과 아울러 독립선언과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손병희는 3·1운동 추진 시 지켜야 원칙으로 첫째, 독립운동은 대중화하여야 할 것, 둘째, 독립운동은 일원화하여야 할 것, 셋째, 독립운동의 방법은 비폭력으로 할 것의 세 가지를 정하였다.⁵³⁾ 손병희는 우리 민족의 대중이 참여하고, 의견과 행동을 일치시켜, 비폭력의 방식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손병희는 이 일의 실행을 최린·권동진·오세창에게 담당하게 하였다. 최린은 독립선언서와 건의서 및 청원서의 제작을 최남선에게 의뢰하였다. 또 권동진·오세창·최린은 2월 20~24일 기

48) 1919년 특예 제1호 동 제5호, 손병희등 고등법원판결문(1920. 3.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6쪽.

49) 줄고, 「천도교와 3·1운동 ~천도교의 역할과 지방독립만세운동의 특성~」, 『천도교의 민족운동운동 연구』 (선인출판사, 2006), 18쪽.

50)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3. 1,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74쪽).

51) 「박영효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1919. 7.10),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1990, 103쪽. 『줄고, 「천도교와 3·1운동 ~천도교의 역할과 지방독립만세운동의 특성~」, 『천도교의 민족운동운동 연구』 (선인출판사, 2006), 19쪽 참조.

52) 1919년 특예 제1호 동 제5호, 손병희등 고등법원판결문(1920. 3.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6쪽.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11. 1, 고등법원(이병헌, 『三一運動秘史』, 105쪽). 줄고, 「천도교와 3·1운동 ~천도교의 역할과 지방독립만세운동의 특성~」, 『천도교의 민족운동운동 연구』 선인출판사, 2006, 21쪽 참조.

53) 최린, 「자서전」, 『여암문집』 상, 1971, 182쪽.

독교 측의 이승훈·함태영 등과 협의하여 독립선언서의 작성·배포, 독립선언식의 개최, 독립만세운동의 거행을 결정하고,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는 15명, 기독교는 16명, 불교는 2명으로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⁴⁾

손병희는 2월 중순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와 미국대통령과 열국 대표에게 보내는 청원서 등을 검토하고 반환하였다.⁵⁵⁾ 또한 손병희는 2월 21일 최린이 와서 林圭가 일본의 내각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 200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기독교측에서 5,000원을 대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말하자, 선뜻 자신의 사재 200원을 제공하고, 천도교금융관장 노헌용과 대도주 박인호에게 공금 중에서 5,000원을 주라고 지시하였다.⁵⁶⁾

손병희는, 권동진·오세창·최린으로부터 대표자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본심으로 찬성하는 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어 그는 2월 20일 자신의 承禮인 權秉憲에게 독립선언의 계획을 말하고 참여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월 20일 경 49일 기도일을 마치고 보고 차 자신을 찾아온 朴準承·羅仁協·羅龍煥·林禮煥·洪基兆에게도 독립선언의 계획을 말하고 참여의사를 타진하였다. 또 2월 24일에는 金完圭에게 계획을 말하고 그가 참가의사를 표명하자 권동진에게 자세한 계획을 들으라고 하였다.⁵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권동진·오세창과 함께 천도교 도사인 임예환·홍기조·박준승·양한묵·권병덕·김완규·나용환, 천도교 장로 이종훈·홍병기의 10명으로부터 민족대표로 참가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자신과 권동진·오세창·최린, 그리고 오세창의 추천을 받은 이종일을 천도교측의 민족대표로 선정하였다.⁵⁸⁾

손병희는 1919년 2월 27일, 최린·오세창·임례환 등 11명이 회합한 金相奎의 집에 사람을 보내 독립선언서에 날인하게 하였다.⁵⁹⁾ 그리고 손병희는 1919년 2월 28일 자신의 집에 천도교·기독교·불교의 민족대표를 불러 면회하였다. 이 때 손병희는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거나 배포하면 소동이 일어날 것이니 독립선언서의 발표장소를 대화관으로 옮기자고 건의하였다.⁶⁰⁾

손병희는 2월 28일 오전 천도교대도주인 朴寅浩에게 “그대는 천도교를 주관하고 있으므로 천

54) 줄고, 「천도교와 3·1운동 ~천도교의 역할과 지방독립만세운동의 특성~」, 『천도교의 민족운동연구』 (선인출판사, 2006), 22~23쪽 참조.

55)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4. 10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95쪽).

56)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3. 7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79쪽). 손병희등 고등법원판결문(1920. 3.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8~19쪽.

57)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4. 10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91, 92쪽).

58) 손병희등 고등법원판결문(1920. 3.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20쪽.

59) 손병희등 고등법원판결문(1920. 3.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21쪽.

60) 손병희등 고등법원판결문(1920. 3.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21쪽.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4. 10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97쪽).

도교의 일은 전부 그대에게 맡긴다. 안심하고 있으라. 나는 우리 선조들이 4천년을 두고 내려오며 이 조선에 분묘를 두고 있으니, 이 때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니 그대는 어디까지든지 종교를 위하여 힘써 달라. 그리고 다수의 교인이 그대를 쫓아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대는 교도를 단속하여 달라.”고 하는 의미로서 서면을 써서 주었다.⁶¹⁾ 손병희는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면 구속될 것을 알고, 천도교의 지도를 박인호에게 특별히 부탁하였던 것이다.

손병희는 3·1운동을 통하여 독립이 되면 국가의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만들려고 하였다. 앞서 살폈듯이, 대한제국시기에 발표한 글에서, 그는 군주제를 비판하고 입헌제를 찬성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도, 그는 우이동의 수련원에 가서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상태가 일변하여 세계에 임금이란 것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판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자신은 민주정체를 원한다고 피력하였다.⁶²⁾

그런데, 손병희는 한국이 독립된 후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 3·1운동 이후에 조직된 대한민간정부와 노령정부의 대통령으로 손병희가 거론되고 있다.⁶³⁾ 그렇지만, 이것은 손병희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 천도교인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손병희는 3·1운동 직후 예심패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나는 조선이 독립국이 되더라도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은 없다. 만약 내가 독립 후에 벼슬길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정치상의 야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나에게서는 종교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하였다. 요컨대 그는 중국에는 정치보다는 교화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V. 맺음말

손병희는 1861년 충북 청주군 대주리에서 향리의 서자로 출생하였다. 집안과 사회의 적서차별에 불만이 많던 그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부랑배와 어울리며 세월을 보냈다. 어려서 한학을 배웠지만, 출세의 가능성이 없자 그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평소에 의기가 충만하였다. 공금을 사용하여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였고, 친구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친구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돈을 훔치도록 시켰다. 양반이 평민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양반을 꿀탕을 먹이거나 모욕을

61) 「손병희선생 취조서」 1919. 4. 10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92쪽).

62) 「손병희 신문조서(제3회)」(경성지방법원, 1919. 7.1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128~129쪽.

63)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집문당, 1982), 52, 55쪽. 참고, 「천도교단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출판사, 2006), 93~94쪽.

주기도 하였다.

이런 그에게 동학은 하나의 빛이었다. 동학은 人卽天 사상에 입각하여 嫡庶와 貴賤과 富貴의 차별이 없었고, 게다가 輔國安民과 廣濟蒼生이란 거창한 목적도 있었다. 신분차별에 불만이 있고, 사회의 개혁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있던 손병희에게 東學은 꼭 들어맞는 사상이었다.

손병희는 1880년대 초 김성지에게 동학을 소개받고, 1882년 자신의 嫡兄의 장남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孫天民을 통하여 동학에 입교하였다. 동학에 입교 후 그는 수도에 정진하였고, 최시형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교내의 지위는 점차로 높아졌다. 그는 1893년 복합상소 즈음에는 김연국·손천민과 같은 총지휘자로 선임되었고, 1893년 3월 보은취회 때에는 총의대접주에 활동하였다. 그리고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의 제2차봉기시에는 북계의 統領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는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패하였다. 그 후 그는 전라도와 충청도로 도피하며 지내다가 1894년 12월 충주에서 동학농민군을 해산시키고, 최시형을 호위하고 강원도로 가서 은거하였다.

이 이후 그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을 다니면서 포교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역차별로 인해 조선사회에 불만이 많고, 문명개화에 관심이 높던 서북지역의 교인들이 대거 손병희를 통하여 동학에 입교하였다.

서북지역의 교인들을 배경으로 교권을 장악한 손병희는 1901년 서양의 문물을 시찰하기 위하여 국외로 나갔다. 미국으로 가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에 머무르게 되었던 손병희는 그곳에서 조희연·권동진·오세창·양한묵 등의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국제질서를 이해하고, 문명개화사상과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과 서구의 정치사상 등을 수용하였다.

그는 국내의 동학청년들을 일본에 유학시켜 세상의 물정을 알게 하고, 「삼전론」·「명리전」 등의 교리서를 보급함으로써 교인들에게 사회진화론과 문명개화사상을 교육시켰다. 그리고 1904년에는 러일전쟁의 혼란을 이용하여 대동회·중립회·진보회 등의 민회를 설립하고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 동학의 명칭을 천도교로 바꾸었다. 그리고 교헌을 반포하고, 교제와 교리를 근대화하며, 개화파 인물을 중앙총부의 간부로 선임하고, 교리서와 신문을 배포·발간하고, 교리강습소와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교인들에게 서구의 문명개화사상과 근대적 지식을 함양시켰다.

동학사상에 입각하여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그는 종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일본이 한국인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자신을 비롯한 천도교회를 핍박하므로, 그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기를 염원하였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자, 손병희는 권동진·오세창·최린 등과 협의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손병희는 처음에는 일제 당국에 독립을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1919년 1월 말에 이르러서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받아 독립선언서를 작성·배포하고 시위를 전개하는 식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최린·권동진·오세창을 통하여 기독교 및 불교 측과의 협동, 독립선언서의 작성, 민족대표의 선정 등을 행하게 하고, 손수 천도교 측 민족대표를 선정하고, 기독교 측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손병희는 독립선언 후 자신이 체포되리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만일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장악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사회를 변혁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손병희가 3·1운동 후 천도교단의 문화운동 전개를 찬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접수:2009.09.08, 심사시작:2009.09.09, 심사완료:2009.10.20]

주제어: 동학, 천도교, 3·1 독립운동

<ABSTRACT>

Son Byung-hi's dream and the movement for liberation of the oppressed nation

Jo, Kyu-tae

In 1861, Son Byung-hi, who was born as the child of a concubine and whose father was the official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was dissatisfied with class discrimination from his family and society and spent his life drinking, gambling and hanging out with roughnecks. Even though he learned Chinese classics when he was young, he fell by the wayside because there was no possibility he could rise in the world. Son Byung-hi was a man of chivalrous spirit, fought against the irrationality of the society and tried to help the neglected class of people.

For him, Donghak was a glimmer of hope. Donghak had the idea that "human being is the heaven" and it had no discrimination of the child of a concubine, low class, and the poor. Moreover, it had high ideals about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s and provide for the welfare of the people(輔國安民) and widely helping the people(廣濟蒼生). Son Byung-hi who was discontent over class discrimination and hoped social reform was introduced Donghak by Kim Sung-ji and Son Cheon-min, which was believed to be just his destiny.

In early 1880s, he started Donghak and concentrated on the spiritual discipline, having relationship with Choi Si-hyung. As his position was getting higher, he was appointed the supreme commander like Kim Yeon-gook and Son Cheon-min in 1893 when Bokhapsangso happened. He also worked as Choonguidaejupju in March, 1893, and as the leader of Bukjup in September, 1894.

However, he was defeated against the government and Japanese troops in the Oukumchi war. Afterward, having escaped to Jeollado and Chungcheongdo, he dissolved the Donghak farmer troops in December, 1894, and then went into Gangwondo guarding Choi Si-hyung.

Since then, he had been having missionary work of Donghak going around Pyongando and Hamkyungdo. Thanks to his effort, northwestern Christians who were interested in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and discontent over the society of Joseon entered a faith in Donghak.

He took power of the religion with Northwestern Christians and went abroad to inspect Western civilization in 1901. He had hoped to go to America but he stayed in Japan. In there, having relationship with Jo Hee-yeon, Kwon Dong-jin, Oh Se-chang, and Yang Han-mook, he realized an international order

and accepted the idea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related with the law of the jungle, and political ideas of Western.

He helped the young of Donghak study in Japan and supplied some books about the doctrines, such as 'Samjeonron', 'Myongrijeon' and so on, and taught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the idea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o the people of Donghak. In 1904, he founded a meeting for the people like 'Dadong meeting', 'Joonrip meeting', and 'Jinbo meeting' and worked for the movement 'Gapjingahwa' using the confusion of Russia.

He changed the name of Donghak into Chundokyp on December 1, 1905. And then, he made the people develop the idea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and the modernized knowledge by proclaiming a doctrine, modernizing the tenet, appointing the person with the Enlightenment Thought as an executive of the center, distributing and publishing doctrine books and newspaper about the religion, and running the institute teaching the doctrine and schools.

According to the idea of Donghak, Son Byung-hi on the idea of patriotism and nationalism thought that the independence of Joseon would be needed to develop the religion. In addition, since Japanese discriminated and looked down on Korean and persecuted Chundokyo including him, he wished Korea could have gotten independence out of the domination under Japan.

However, when the president of America Wilson proclaimed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fter World War I, Son Byung-hi decided to carry on an independence movement with Kwon Dong-jin, Oh Se-chang and Choi Ryn. At first, Son Byung-hi had been planning to carry on a movement of petitioning an independence to Japan. However, influenced by an independence movement inside and outside of Korea, he decided to carry on an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way that he wrote and distribut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continued the demonstration in late January, 1919. He had Choi Ryn, Kwon Dong-Jin and Oh Se-chang cooperate with Christianity and Buddhist, wri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select the leader of the people, and then he himself selected the leader of Chundokyo and provided some money to Christianity.

Although Son Byung-hi expected to be arrested by himself after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e wished to turn Korea into a democratic republic if an independence were achieved. Also, he wanted not to commit himself to politics by holding power but to innovate the society through education. Since he had the idea, Son Byung-hi agreed to develop the culture campaign of Chundokyo after the 1919[Samil] Independence Movement.

key word :Donghak, Chundokyo, 1919[Samil] Independence Movement